

학생회 선거 '흔들 흔들'

서울 가정대 후보자 없어 등록 연기...대부분 단독 출마

동연선거 선관위 운영미숙으로 재투표 논란 수원

양캠퍼스 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의 관심부족과 개·투표 진행 미숙으로 학생회 선거 전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내년에 실시될 학부제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수원캠퍼스는 작년에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은 TV 정책토론회도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단대학생회장 선거가 진행중에 있으며 예년과 비슷하게 단독 후보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정대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 마감일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학생회 존폐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동아리연합회(동연)장 선거에서 기호 2번 방진영 선거운동 본부가 투표 비밀 공개여부와 휴학생, 재학생의 투표권 문제로 동아리선거관리위원회(동선관위)에



▲사진은 지난 13일 치러진 단대선거 투표 모습

이의를 제기했다.

기호 2번에서 제기한 문제는 투표과정중 동선관위에서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가입, 투표자의 소속 동아리와 이름 등의 비밀이 보장되지 못한 점과 휴학생, 재학생의 투표권의 인정 등이다.

또한 휴학생과 재학생 투표권 인정에 대해서는 "휴학생들은 동연회칙에 의해 동아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휴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희대 규정집에 표기되어 있다"며 휴학생 무효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재학생 투표는 무자격자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동선관위에서는 지난 12일 치러진 동연선거를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집에 '휴학생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에 있어 학적과 관계자는 "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학적을 소유할 뿐이지 휴학생의 의무나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동아리라는 특유의 성격상 휴학생이 동아리인의 자격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동선관위의 사전 심의가 부족했고 후보자와 동아리 학생들간의 적절한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선거운영 미숙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공광섭기자)

이계택교수 문화상 수상



상'을 수상했다.

이교수는 복지행정론, 지방행정론의 저술로 지방경제·복지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에 경기지방발전기공로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수여하게 됐다.

선거임후보자 등록마감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총학생회장 및 총여학생회장 선거임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제29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송치욱(정외 91)-허경태후보(문리대 물리 90)후보와 박정운(생물 93)-김영필(경제 93)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또한 제11대 총여학생회장 선거에 조영주(문리대 수학 94)-강근정(지리(야)후보가 단독 등록했다.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을 보유해야하며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총여학생회 피선거권자는 위와 같고 여성이어야 한다.

직원인사제 연구팀 결성

우리학교는 현행 인사제도의 모순점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직원인사제도 연구팀을 결성, 운영기로 하였다.

이 모임의 구성원으로는 학교 교육 직원과 노조측 직원이 동수 참여하게 되며 주로 인사제도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 단체는 학교직원 승진 및 직책, 급여제도, 근무형태 등에서 갖게 되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내 행정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해 한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인사제도에 비해 한걸음 앞선 방식의 인사제도"라고 평했다.

한리안 : GO KHU 32
하이텔 : GO KHU 10
인터넷 :
<http://news.kyunghee.ac.kr>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

1인당 10점 이내...오는 25일까지 마감

저희 대학주보사에서는 우리학교의 자연과 학생들을 소재로 한 제2회 경희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학교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이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출품자격: 재학생, 대학원생, 동문, 교직원 등 모든 경희 구성원
2. 작품내용: 캠퍼스 경관 및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모습(우리학교와 관련된 소재이면 내용에 관계없음)
3. 규격: 11×14 사진을 첨부한 원판 필름(사진에 패널 부착 금지)
4. 출품수: 1인당 10점 이내의 미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이나 모방작은 입상취소)
5. 출품요령: 출품료는 없으며 작품명, 촬영장소, 작가명, 주소, 학과/학년,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 제출(학생이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을 명기할 것)
6. 작품접수: 1996년 9월 23일-11월 25일까지(우편접수는 11월 25일 도착분까지)
7.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4 수원: 280-2056)
8. 입상작 발표: 1996년 12월 2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9. 시상내용: 장원 1작 장학금(상금) 1백만원, 우수상 2작 장학금(상금) 50만원
각작 3작 장학금(상금) 10만원
10. 참고사항
1) 모든 입상작품은 대학주보사에 귀속됨.
2) 시상식, 전시회 및 낙선작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입상작 발표시 알릴 예정임

대/학/주/보/사

교시탐

외발이 제도(?)

▼한 학생이 목발에 몸을 의지하고 가파른 고개를 오른다. 앞서가던 학생이 뒤돌아 이 친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늦추어 옆으로 바짝 다가선다. 그 움직임은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한 동정의 태도가 아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났을때 흔히 볼 수 있는 반가움의 표시다. 참 아름다운 캠퍼스의 표정이다.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학교의 아름다움에 어느새 한 몫을 더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모습을 볼 수 없으려나 보다.

▼우리 학교는 지난 9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중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지체 부자유자에게도 고등교육의 장을 열어 보인다는 취지 아래 실시하게 되었던 이 제도는 시작한 지 2년 만인 97학년도 이르러 그 존재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마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상때문에 더이상 장애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는 당사자는 물론 학교 이미지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이번 결정은 어렵게 지퍼놓은 교육의 열의를 사그라트린 결과를 초래하고, 재학생인 장애학생에게는 환경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교측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밝힌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얼마전 장애학생의 편의도모라는 명목아래 도입된 '장애학생 도우미 선별제도' 또한 책임지지 못할 일에 대한 학교측의 어설픈 뒷감당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대학경쟁시대인 요즘 모든 대학들은 우수 신입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학교측은 이 제도가 대학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대학상을 생각해 볼 때 교육받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건없는 포용을 베푸는 것이 더욱 대학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학교측은 이번 제도의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남이 기자)

스포츠 센터 건설 지연

교육부 승인 늦어 공사자체 연기

수원캠퍼스에 건설하기로 했던 '스포츠 센터'가 부지 승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5월 교육부에 교육부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자체가 연기되어 왔다.

이에 스포츠센터 건설 유치를 추진하는 이일연 재무처장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전입금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며 "스포츠센터는 그 대표적인 사업이고 교육부의 승인이 통과되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센터는 실내 골프연습장(2백m, 60타석)과 실

외 골프장(9홀), 수영장, 사우나 및 샤워실, 경희HOUSE 등으로 제과대 뒤 야산에 지어질 예정이다.

또한 경영은 스포츠센터 건설예산인 1백50억원이 수익금으로 마련될 때까지 학교와 신라컨트리클럽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학교측에서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다.

보건소 전문의 진료실시

수원캠퍼스 보건소는 경희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전문 진료'를 실시한다.

학기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진료하며 학생에 한해서는 무료이다.

의료공제비 2천원 환불

서울캠퍼스 장학복지과는 96학년도 2학기 학생회비 내역 중 하나인 의료공제비로 납부받았던 9천원 중 2천원을 학생 전원에게 환불한다.

이번 환불은 등록금 고지서 제작 과정 중 착오로 2천원을 과기입하게 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환불은 현금카드 겸용 학생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통장을 통해 자동입금되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당해 학기 영수증을

소지하고 학생처 장학복지과에 문의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수원, 언어교육연구원 개원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이 내년 1월 6일 외국어대학관 내에 개원한다.

지난달 언어교육원 개설준비위원회(위원장: 정석진 기획실장)가 벌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번 언어교육연구원은 TOEIC과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강좌를 개설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강좌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버스 증편 배차운행, 기숙사 개방 확대, AV SYSTEM 및 MULTIMEDIA가 설치된 강의실 활용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편의와 강좌참여를 돕는다.

현재 언어교육연구원장으로는 외국어대학장 이숙자(일본)교수가 내정된 상태이다.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씁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경희대학교”

꿈과 이상이 자라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변신하는 경희대학교를 지켜봐 주십시오.

발전기금 참여방법 안내

- 참여범위: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일시납부, 분할납부, 단체별, 특정목적기부금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및 분할납부: 일시 또는 월납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직장/지역동문회 등)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납부는 귀하께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무통장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서울은행 17301-2710-209 신한은행 131-13-10336-6
농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체국 012336-0025566
- 현금을 출연하시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시는 금액을 일시에 출연하거나, 출연금액을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직접방문(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게 한함)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연은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참여해 주신 분께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세금감면이 되는 발전기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기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히 보관합니다.
- 학교의 중요행사에 초청하며 학교시설, 부속기관 이용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학교 및 동창회 발간 홍보물을 우송합니다.
- 기타 본교 '기부금관리규정'에 의거 예우합니다.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961-0931/2 Fax: 961-0906